

LG화학, 석유화학 매출 3조원 돌파

2/4분기 32% 증가 3조7651억원 ... 정보전자소재는 1조3000억원으로 확대

LG화학(대표 김반석)이 석유화학과 2차전지 분야의 성장세에 힘입어 2/4분기에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했다.

LG화학은 2010년 2/4분기 매출 5조281억원, 영업이익 8279억원을 기록했다고 7월20일 발표했다.

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1.3%, 영업이익은 31.6% 증가했으며 순이익도 6457억원으로 36.0% 급증했다.

특히,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로 증권가의 예상치를 1000억원 가량 웃돌았으며,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고, 순이익도 6000억원대에 최초로 진입했다.

주력인 석유화학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2.2%, 22.0% 개선된 3조7651억원, 6239억원을 기록했다.

정보전자 소재도 매출 1조3003억원에 영업이익 2059억원으로 각각 28.1%, 70.9% 증가했다.

LG화학은 고부가 PE(Polyethylene) 판매가 늘고, 인디아와 중동 등 신흥시장에서 PVC(Polyvinyl Chloride)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.

또 프리미엄 TV 수요가 호조를 보이면서 광학소재와 LED(Light Emitting Diode) 매출이 증가했고, 신 성장동력인 2차전지 사업도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영업실적에 반영됐다고 밝혔다.

LG화학 관계자는 “3/4분기에는 석유화학 부문이 고부가제품을 중심으로 경쟁기업과 차별화된 수익을 낼 것”이라며 “폴리올레핀은 신규 공급 증가로 조정의 여지가 있지만 성수기로 접어들고 있어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7/20>